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연극 분야) 3차 실연심의 회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연극 분야) 3차 실연심의
- 회의일시 : 2025년 3월 25일(화) ~ 3월 28일(금) 10:3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꿈밭극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구태환, 김은성, 양근애, 정범철, 황운기, 황진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창성과 다양성을 갖춘 공연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극분야에서는 올해 88건이 신청하였고 1차 서류 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총 11건의 실연심의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아르코꿈밭극장에서 60분 간 낭독형 실연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7건을 올해의신작 최종 지원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차 실연심의는 작품성(40%), 사업계획의 타당성(20%), 기대효과(20%), 그리고 관객평가(20%)를 심의기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관객평가단의 호응도를 통해 공연의 동시대성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적 경험을 가진 관객평가단의 점수는 심의위원의 평가 확정 이후 합산되었습니다. 실연심의에서는 올해의신작 심의기준을 공통적으로 고려하되, 서류 심의와 인터뷰 심의에서 확인한 단체의 기획의도와 연출구성안, 동시대적 문제의식, 관객개발 의지 등이 어떻게 무대에서 타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공연의 목표가 선명하게 드러난 작품도 있었지만, 창작 의도에서 기대한 주제 의식이 무대에 와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연심의가 6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서 한정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낭독형 실연 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공연의 취지와 무대구성의 미학에 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대상 사업의 구성원들과 과거 작업 이력이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심의위원은 해당 작품의 심의에서 엄격하게 회피하였습니다.

실연심의를 선보인 11편의 낭독 공연은 소재와 주제, 다루고 있는 시공간이 다양하고 폭이 넓었습니다. 여성들의 이야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다루는 공연이 많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다수의 공연이 보편성을 추구하고 관객의 정서적 반응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금 연극이 관객과 어떻게 교감하고자 하는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심의위원들은 공연 대본을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문제의식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대상 작품들이 올해의신작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객을 만날 힘이 있는지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계획의 합리성과 공연계획의 구체성, 관객개발의

목표 등을 꼼꼼하게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정대상 작품의 지원규모를 정하여 총 1,078,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의신작 지원작을 선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연극이 극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관객과 함께 고민하는 일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연극의 본래적 특성이 어떻게 미학적 성취를 이끌어내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엿본 자리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단체들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연의 의도와 효과 사이의 간극과 난점들을 세심하게 살펴 공연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여러 차례 심의를 준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단체와 함께 해주신 관객평가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심의위원 일동